

# 임실군, 저지종 치즈 생산

###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내 낙농 및 유가공 발전 업무협약 저지종 수정란, 생축 보급·유산균 등 분야 협업 연구

임실군이 맛이 좋고 영양분이 월등히 높은 젓소의 품종인 저지종을 통한 고품질 치즈 생산과 전국적인 확대 보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군은 저지종 등 차별화된 임실 치즈 생산을 통해 임실치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 등 임실치즈의 제2의 전성기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 민 군수는 지난 4일 국립축산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축산

과학원 임기순 원장과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실군, 임실치즈연구소, 임실치즈농협 등 임실군 낙농 및 유가공 산업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생산하는 젓소의 품종인 저지종 수정란과 살아있는 가축인 생축 보급 및 협업 연구와 유산균 및 유제품 분야

협업 연구에 관한 사항이다.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낙농산업과 유가공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치즈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저지종 수정란 및 생축 보급은 국립축산과학원의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지종은 얼룩 젓소인 홀스타인종보다 우유 생산량은 적지만 우유 단백질과 지방, 고형분 함량이 매우 높아 치즈의 풍미가 뛰어나며 수율도 높아 원유량에 비해 치즈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저지종을 통한 고품질 치즈 생산을 위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대표브랜드인 치즈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서 발 빠르게 저지종 수정란 보급을 통하여 고품질의 치즈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는 유산균과 활용 기술 이전을 통해 기존의 유산균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실군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저지종은 우유 맛이 매우 좋는데 국립축산과학원의 전문적 기술 보급과 전문성을 협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지난 4일 국립축산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과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최영일 순창군수는 5일 연말을 맞아 개최된 순창군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순창군은 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소재한 기업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기업의 인력난 해소, 근로자 정주 인프라 확충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군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순창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순창이 기업을 보듬어 주고 기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은 현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순창군은 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소재한 기업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기업인 간담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해 인구소멸위기 대응기금 약 70억 원을 투입해 제조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선8기 역점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근로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5일, 도동동 갈치마을 주민복합문화공간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 주민 애로사항 청취, 독거노인 2개 가정방문 등 봉사활동

남원시는 5일, 도동동 갈치마을 주민복합문화공간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체험의 날에는 도동동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최경식 시장과 소통간담회를 가지고 취약계층의 현장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소통실의 120만원 봉사대는 이풍팔래방 운영 및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봉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 △민원과 도로명 안내 및 홍보 △보건의 건강상담 △주민복지과 복지상담 △환경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및 홍보 △도립남원노인요양병원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남원시재활군인회여성회 손마사지 봉사 △여성이용소방대

추억마켓(계란빵, 팝콘) 운영 및 소방 체험, 소화기 사용법 일립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어묵국수 배식 등 10여 기관과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해 나눔 봉사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12월 체험의 날은 최경식 시장이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독거노인 2개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갈치마을 주민 박모씨는 "여러 건강사항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주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보건소, 치매환자관리 역량강화교육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4일, 참좋은웨딩홀에서 전국 최초로 관내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018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전담부서로 치매안심과를 신설하는 등 그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매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효과적이고 돌봄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위취 교수가 치매에 대한 기본 이해, 치매 환자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



처, 가족 및 보호자와의 협력,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 종사자들이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치매 환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 등이 공유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안전상비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순창군이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이 판매점 운영실태와 영업소 멸실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효기간 경과 제품 △의료기기 오인광고 △의료기기 취급업체 거짓·과대 광고 △표시 기재 적절성 여부 확인 △불법 의료기기 취급 판매 등 관련 사항 준수 이행 여부 등이 해당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농기센터 유튜브 소셜미디어 최우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유튜브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2023 농촌진흥 우수 소셜미디어 선발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심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농업농촌사업을 널리 알리고 활발히 생생한 소통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을 선발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남원시는 이번 심사에서 콘텐츠의 양과 질, 의사소통 및 공감성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남원시는 지난 4일, 황성태 전 서부지방산림청장과 김석철 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31호 및 32호 남원시 명예시민이 되었다. 남원시는 황성태 전 서부지방산림청장(재임 2022.6.~2023.5.)과 김석철 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재임 2022.6.~2023.5.)이 재임 동안 남원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국토 안전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1번째와 32번째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유형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